

용문의 만남이 벌써



김 경 호 대표이사
에스웨이하이테크

한 국의 산, 계곡, 강, 섬, 그리고 산골마을, 그중에서도 특히 산을 사랑하는 전자인들이 하나 둘씩 등반대회를 핑계로 그리움을 찾아 모여든다.

벌써 14회 대회로 강산이 변한다는 짧지 않은 세월을 겪어내며 이번에는 조선 세종때 정삼품보다 더 높은 당상직첩(堂上職牒)을 하사 받은 은행나무가 있어 유명한 용문산(1157.2m)계곡으로 발길이 하나 둘씩 모여든다.

전년 대회의 아쉬움과 다시 만나는 반가움으로 악수를 청하며 대회에서 맺은 신혼부부는 벌써 돌잔치를 해야 한다며 극성이고, 당당하게 겨뤄보자며 상대편에게 술부터 권하는 산꾼들의 정감이 오갈 때 어두움이 내리고 폭죽소리가 요란하게 밤 하늘을 가르며 화합의 장을 알리는 모닥불이 점화되고 우렁찬 함성이 산허리를 흔들여 댄다.

비로소 이제 대회의 전야제가 시작된 것이다.

모두들 소속을 떠나 한덩어리가 되어 모닥불을 중심으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즐겼다.

용문의 초저녁 잠을 깨우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산악인의 기상은 밤하늘의 별이라도 떨어뜨릴 것같은 기세로 한마음을 만들어 냈다.

좀처럼 꺾이지 않던 함성도 장비점검을 안내하는 방송에 모닥불의 숯불구이를 뒤로 한 채 좋은 결과를 얻고자 분주하게 움직인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부담스러운 것!

약식으로 치뤄지는 장비, 막영점검은 1시간만에 끝나고 벌써 밤 11시가 넘었다.

술꾼들은 이제 한창 잔을 기울일 때이지만 내일을 위해 욕심을 버리고 조용히 텐트 안에서 용문을 잠재운다.

어느 누가 그랬던가 진정한 산꾼은 아침 일출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움으로 ...

고...

다섯시가 조금 지난 시간 벌써 여기저기 텐트가 흔들리고 부지런한 산꾼들 덕분에 용문사 주지승도 아침 불공시산을 놓치지 않았으리라.

아침 햇살은 한낮 폭염을 예견하듯 산악인의 마음처럼 맑은 아침을 선물했다.

아침식사를 끝낸 대회 참가자들이 복장을 갖추고 모여들어 대회 선서를 시작으로 선전을 기대하며 산행코스에 들어선다.

4인1조로 남자부, 여자부, 혼성부 각각 팀원과 소속의 명예를 걸고 고락을 함께 극복해야 하기에 이 대회는 화합이며 친선에 주된 목표가 있다. 서로 끌어주고 기다려주고 서로의 배려와 인내가 필요한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의상대사가 그의 지팡이를 꽂은 곳이라는 설이 있는 천연기념물 30호 용문사 은행나무를 옆으로 정상밑 암장을 돌아 야영장으로 내려오는 구간에는 팀원, 장비, 필기시험이 선수들을 잠시나마 쉬게 하지만 흐르는 땀만은 그누가 대신 해주랴.

출발한지 2시간30분이 지나 첫 하산팀의 도착을 알리는 팡파르가 산이 떠나가도록 울렸다.

전년도 최우수팀인 삼성전자 남자팀이었다. 아마 거의 뛰다시피 산행을 한 듯하다. 한참뒤 삼영전자공업 혼성팀, 에스와이하이테크 여자팀, 세진전자 남자팀이 도착되었고 이 팀들 역시 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어느덧 푸짐한 상품과 아쉬움을 뒤로하고 용문의 막이 내리고 있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벌써 헤어짐을 준비하고 또 1년을 기다림으로 접는다.

10여년을 지켜보며 많은 전자인의 역사를 더듬어보지만 맨처음 기억나는 것은 아카시아 향기가 날때쯤이면 다시 만난다는 그리움의 향기자락이다.

